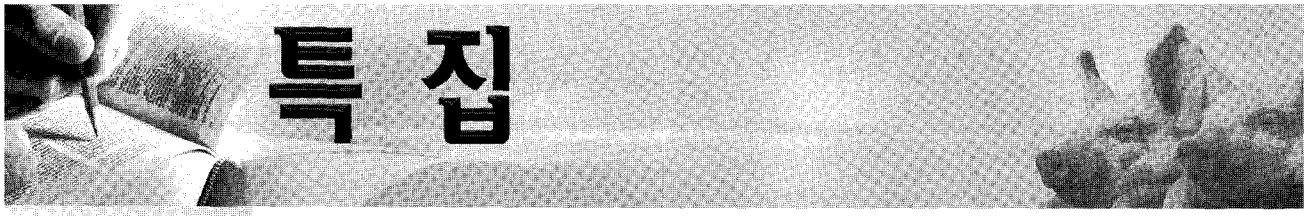


어떤 교육이 왜 필요한가?

1. 양돈 아무나 하나!

1960년대만 하더라도 농업에 대한 일반적 정서가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남다른 기술도 없으니 농사나 지어라"하는 잘못된 인식의 시대였다. 그런 잘못된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지금은 "재산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 절대로 농사는 짓지마라"는 정반대의 인식전환의 시대가 된지 오래다. 농업의 태생적 조건들이 우리 사회가 산업화 사회로 발전 변천함으로써 상기와 같은 전환된 인식을 만들게 되었다.

그 태생적 조건이란 :

첫째, 농업은 육체적 노동 위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생산자의 건강한 육체가 절대적 요건이다.

둘째는 최초, 최고, 최후의 환경산업으로써 환경을 죽일 수도, 유지·보전할 수도, 더욱 활발히 살릴 수도 있는 산업이며, 국가적 제약과 간섭이 심하고 자연재해에 아주 민감한 산업이다.

셋째는 생물, 물리, 화학, 기상, 토양, 전산 등등 기초 과학지식의 종합적 자체 응용능력이 없이는 경쟁과 생존이 불가능한 지식인 산업이다.

넷째는 투자와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낮은 산업이 농업인 것이다.

다섯째, 생명을 다루는 창조적 행위로써 성실과 노력이 끝없이 요구되는 산업이다.

조 동 주 원장
양돈연수원

이상 간단히 몇 가지 고찰만으로도 대량소비와 대량생산의 산업화된 현대의 농업이란, 건강한 육체에 강인한 정신력과 높은 생산 기술을 갖춘 박식한 지식인의 산업으로 단정된다. 합당한 육체와 창조적 정신, 그리고 광범한 지식과 부단한 성실을 동시에 구비하지 않으면

이룩하기 어려운 산업이 농업이라는 말이다.

아무나 농민이 되고, 아무나 양돈가가 되는 시대는 지나갔다. 기술없는 농민은 이미 농민이 아니다. 정신 성장과 지식 축적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축적된 지식은 기술로 환원된다.

그리하여 기술교육은 현대 농업에, 현대 양돈에 절대 필수·필요 요건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2. 한국적 양돈 교육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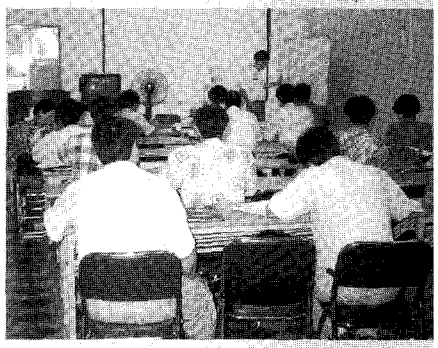
소비자가 원하는 저가의 고품질 상품을 생산, 현대적 경영으로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교육 목적의 일반 이론을 뛰어넘어, 우리 양돈의 미래를 형상화 하면서 교육 당위성과 그 방향을 모색하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좌표가 설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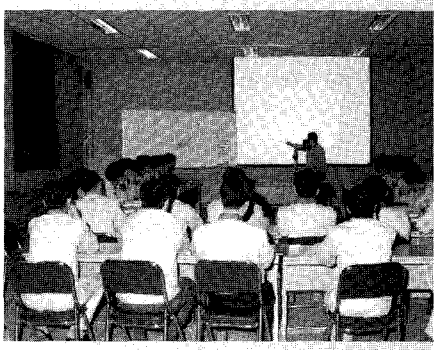
첫째는 재산과 건강의 유무는 개인적인 여건환경이고, 기술의 유무는 생산자의 의지요, 노력인 것이다. 양돈의 일등 기술, 기능공이 되기 위해 총체적 사양관리의 기술교육이 여기에서 필요하게 된다.

둘째, 현대 양돈이란 생산자인 아군이 질병이라는 적군과 분뇨라는 적군을 동시에 상대하는 피나는 싸움이다. 분뇨가 흙을 살리고, 흙이 환경을 살리고, 환경이 인간을 살리고, 인간이 가축을 살려야 하는 그리하여 필요한 단백질을 적당한 유기질을 인간과 토양으로 환원케 하는 생태계를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되었다. 좁은 국토의 한국 양돈은 앞으로 이 개념에서 한발짝도 비켜갈 수가 없게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노력과 연구가 우리의 교육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교육되어져야 한다.

셋째,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대륙 가운데에서 농업의 산업화가 확실히 굳어지는 날, 한국농업은 대륙 3차 농업혁명의 길잡이가 되고, 우리의 지평은 만주벌판을 넘어 멀리 중앙 아세아에 이르게 된다. 농업의 아세아화 또는 아세아적 농업시대가 열리게 되고, 우리가 그 선두에 서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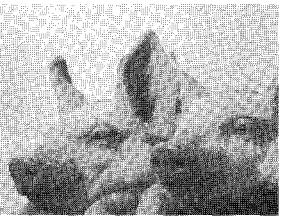
이 세번째 견해에 대해서는 반론재기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필자는 잘 알고 있다.





지면 관계로 어째서 우리가 그 선두에 선다는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반론자들의 개별적인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하는 바다.

넷째, 통일을 위하여 아니



면 북한의 건전한 재건을 위하여 남한이 세계적 양돈 기술국이 되어야 한다.

국토는 있고, 농토가 없는 헐벗은 북한 땅에 언젠가는 국가가 재건되는 날 국토정리와 농지갱생은 국정 최초, 최고의 정책 과제로 등장한다.

그것은 이미 국가 발달사에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공장기술 보다는 농장기술이, 자동차 생산보다는 작물생산이, IT기술보다는 흙 살리는 기술이 절대 먼저요, 절대 필수다. 국가 건설의 기본적 순서이기 때문이다.

세번째와 네번째의 상황이 빨리 오던 늦게 오던 역사의 흐름은 그 속도를 내고 있고 우리는 그 한복판에 서 있다.

북한의 농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륙의 양돈을 서구 백인들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양돈 연구가 절실하며 또한 한국적 양돈 교육 방향도 여기에서 설정된다.

다섯 번째는 영농자세와 정신 교육을 강조하게 된다.

우리는 왜 돼지를 기르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돼지를 기를 수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돼지를 길러야 하는가?

> **아무나 농민이 되고, 아무나 양돈가가 되는 시대는 지나갔다. 기술없는 농민은 이미 농민이 아니다. 정신 성장과 지식 축적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축적된 지식은 기술로 환원된다.**

이러한 현실적 명제를 명쾌히 헤쳐봄으로써 크게는 농업과 국가, 작게는 양돈과 국가의 함수 관계를 사회학적으로 확연히 인식케 하여 양돈가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여야 한다.

경제적인 보람과 정신적인 긍지는 생산의욕과 사회속 개체적 자부심을 고양시키게 되고, 생산성 향상은 물론 농업 생산자의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가 명확히 하는 승화된 농민정신을 함양하게 되는 것이다. 정신교육, 그것은 국가발전과 개인성장에 절대 필요한 교육이다.

이제 우리는 산업화한 농업의 생태적 분석에 의한 양돈 기술 교육의 필요성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21세기 아세아 농업혁명(농업의 산업화)에 따르는 한국의 위치와 역할, 나아가 북한 재건과 남한 양돈을 간결히 고찰함으로써 한국 양돈의 앞날과 그 교육 방향을 짚어보게 되었다.

교육을 통한 축적된 기술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사회적 안정을 공고히 하면서, 승화된 농민 정신으로 아세아 양돈의 주역이 되고, 통일의 역군이 되는 그런 기술농업 시대가 빠른 속도로 우리 앞에 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역사인 것이다.

오늘 질병이, 오늘 분뇨가, 오늘 환경이, 행정이 우리를 조금은 아니 크게 어렵게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내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연구 노력하며,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역사의 그 날들을 예비해야 할 것이다. 양돈